

소그룹 교재

2023
02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반복되는 죄



새268장(통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새421장(통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여는 질문

내 삶에서 알면서도 잘 바뀌지 않고 반복되는 좋지 않은 습관이나 행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 이해

창세기 19장은 모압과 암몬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이 늙은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들은 혈통으로 보면 이방인이거나 보다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압과 암몬은 이방인이라고 보고 생각합니다. 쉽게 구분 짓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은 우리와 같은 종족이 아니면 이방인이라 취급합니다. 나와 다르면 이방인이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방인은 인종의 구분이 아닌 신앙이 같고 다름을 통해 나뉘는 것을 봅니다.

나와 다르면 금방 혐오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외모로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반복하는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에훗을 왼손잡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번역가들은 “두 손이 모두 오른손인 사람”, “두 손을 모두 오른손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양손잡이”로 이해했다는 것을 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두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때 우리는 양손잡이라 부릅니다. 밥 먹을 때 유리하다고 하지요. 그런데 밥 먹을 때 뿐 아니라 왼손 잡이든 오른손 잡이든 주어진 두 손을 함께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타자를 칠 때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균형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은 에훗의 이름처럼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를 아는 균형을 말합니다. 진영논리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의 양손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마주 서서 손을 잡으면 내 오른손이 상대의 왼손을 잡게 됩니다. 우리 서로 손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에훗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반복하고 있는 표현은 무엇인가요?(12절)

삶 속으로

- 고치고 싶지만 여전히 반복하는 습관이나 잘못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반대로 반복하던 습관 혹은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고쳐졌을 때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암송 구절 | 사사기 3: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녀와 나눔

아이들에게 주신 양 손을 가지고 오른손으로 하는 일, 왼손으로 하는 일, 또한 양손하는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지도자가 치러야 할 대가



새516장(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새212장(통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여는 질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본문 이해

이익상 목사님의 ‘내가 왕이었습니다’ 책에 보면 중세 랍비 라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비유를 해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라쉬는 감람나무가 첫 번째 사사 웃니엘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감람나무를 유다에 비유하고 유다 지파 출신 사사가 웃니엘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사사 드보라를 비유합니다. 라쉬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단 꿀이라 이해하고 드보라의 뜻이 꿀벌이기에 드보라를 비유한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사사 기드온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익상 목사님의 해석이 참 확 다가옵니다.

“웃니엘이 왕이 되려 했는가? 그는 갈렙의 사위이면서 유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문의 배경이었지만 왕이 되려 하지 않았다. 그가 할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스스로 영화로운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드보라를 보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 꿀벌처럼 작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해냈던 드보라는 왕이 되려 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네 아버지 기드온을 보라! 비록 그의 말년은 너무 많은 소유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잊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가 가진 신앙의 전통 때문에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 너는 스스로 왕이 되어 너보다 더 찬란한 백향목 같은 이스라엘을 불살라 없애려고 하느냐?”

이 나무 비유는 오늘날 너무 많은 지도자들의 모습이라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큼은 어

면 지도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합니다. 요담의 외침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외침을 듣기 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물론 이 시대 각 분야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기 보다 왕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지도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속으로

- 아비멜렉이 치른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요?(50-57절)

삶 속으로

-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유익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 더 컸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 내가 닦고 싶은 나무는 나무 비유 중에 어떤 나무인가요?

암송 구절 | 사사기 9:15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녀와 나눔

아이들이 닦고 싶은 스타나 리더가 있다면 누군지 나눠봅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보아요.

사명을 재확인 하라



새347장(통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새435장(통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모든 상황속에서

여는 질문

여러분은 살 집(땅)을 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 이해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과 길을 계속 물었을 것입니다. 왕이 없는 불안정함 속에서, 리더의 부재 속에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도자가 없을 때 오늘 말씀은 사명을 잃어버린 단 지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 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 시대는 쉽게 이사하고 쉽게 교회를 정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더 혼란스럽고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 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보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땅을 다시 확인하라’ 보다 ‘사명을 재확인 하라’로 제목을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가치와 기준과 소망을 둘 것인지 하늘에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는 달콤한 거짓 제안에도 넘어가는 종교지도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냐고 묻습니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따지다가 정말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을 놓치는 삶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제사장들마저도 돈과 힘을 쫓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봅니다. 우리

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한 주도 허락하신 교회와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가는 신실한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 미가가 위협을 듣고 그의 발길을 돌려 돌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26절)

삶 속으로

-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암송 구절 | 사사기 18:1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 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 때까지 기업을 분배 받지 못하였음이라

자녀와 나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주민의 삶



새436장(통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새93장(통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여는 질문

미국을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이민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혹시 미국에 이민와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본문 이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이 죽고 홀로 남게 됩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처럼甦기는 사사 시대의 희망과 같이 등장합니다.甦기 4장 17절은 성경에서 다윗의 이름이 처음 언급된 곳이기도 합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그 이유와 상황이 어찌했던 기대와 소망을 갖고 떠났을 것입니다.

베들레헬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다릅니다. 나오미와 甦기 보여준 이주의 여정은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먹고 살기 위해 떠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이방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잠깐 머물러 했는데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꽤 오랜 시간 체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부이자 이방인이었던 甦기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쉽게 지나치기 쉬운 이주자들, 이민자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 낯선 이방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한국에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는데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말입니다.

특히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미국에서 이민자인 우리가 이민역사가 길던 짧은 40년 전에 왔던 어제 왔던 교회에서 '우리'라 부를 수 있는 하나됨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알듯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수록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민자들과도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일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왜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나요?(1절)

삶 속으로

- 다른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반대로 다른 인종, 문화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느낀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암송 구절 | 룻기 4:17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벧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녀와 나눔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이민자의 자녀로 살면서 피부색이 다르다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고 친구들에게나 학교에서 혹시 당한 어려움이 있었나요?

Recurring Sins



Would You Be Free from Your Burden of Sin
Everything Is Changed
Create in Me a Clean Heart



Opening Discussion

What would it be like if there were any bad habits or behaviors in my life that I was aware of, did not change for the better and repeated?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Genesis 19 records the origin of Moab and Ammon. The sons of Lot's two daughters who cohabited with their old father are Moab and Ammon. In terms of lineage, they become the children of Israel rather than Gentiles. As we read the Bible, we see and think that Moab and Ammon were Gentiles. Those of us who like to make easy distinctions are treated as strangers unless they are of the same race as us. If you're different from me, you're a stranger. In the Bible, however, Gentiles are distinguished not by the division of race but by whether they have the same faith or not.

We, who live in a world where we easily hate those who are different from us, must be careful. God also said that He sees the heart, not the appearance of man. Those of us who live in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make the repeated mistake of judging people easily by their appearance. That is why it is essential to have eyes that can see from God's perspective.

Today's reading records Ehud as left-handed. Whether you are right-handed or left-handed is not important, but in the Greek translation of the Hebrew Old Testament, we see that translators understood him as "a man whose hands are both right hands" and "ambidextrous who freely uses both hands as if they were right hands."

When I use both of my hands freely that is being ambidextrous. It's said to be advantageous when eating. However, there are times when you use two hands together, not only when you are eating, but also when you hold your left or right hand. It's time to type. Let us consider that our stories must not be out of balance.

The balance here is, as Ehud names it, "From whom does power come from?" Knowing balance. It is not factional logic, nor is it a fight betwee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We will have to use both hands for the glory of God. When I stand face to face with someone and hold their hands, my right hand grabs the other person's left hand. We should join hands with one another and work harder to do what pleases God.

Into the Word

- What is the phrase that the historian who wrote Judges is repeating as he begins the story of Ehud? (v. 12)

Into our life

- What is a bad habit or fault that you repeat but want to change?
- Conversely, what changed in your life when you corrected a mistake or stopped repeating a bad habit?

Memory Verse | Judges 3:15

Then the people of Israel cried out to the Lord, and the Lord raised up for them a deliverer, Ehud, the son of Gera, the Benjaminite, a left-handed man. The people of Israel sent tribute by him to Eglon the king of Moab.

Sharing with your children

Discuss with your children what they do with their right hand, what they do with their left hand, and what they do with both hands.

The Price a Leader Has to Pay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s
O Master, Let Me Walk with Thee
Jesus, We Enthroned You



Opening Discussion

What kind of leader do you expect in this day and age in which we live?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Did Othniel try to be king? He was Caleb's son-in-law and the backdrop of a family that could influence not only Judah but also Israel, but he did not want to be king. This is because his job was to glorify God and man, not to ascend to a position of self-glorification. Look at Deborah! Deborah, the general who led the war to victory, who was as small as a bee but who was with God and who did such a wonderful and great thing, did not want to be king. Because all of this is done by God. Look at your father, Gideon! Although his later years of possessions caused him to forget that God was King, he did not call himself king because of his faith traditions. But now do you want to become king yourself and burn down Israel, like a cedar that is more brilliant than you?

This parable of the tree is not new because it is the image of so many leaders today. But as much as we do, we should at least know which kind of leader is pleasing to God. May we hear our cry today in the cry of Jotham. I pray that the leaders of the Church, as well as the leaders of all disciplines of our day, will be leaders who glorify God as King and praise God for what He has done, rather than trying to be kings themselves.

Into the Word

- What is the penalty for Abimelech's sins? (vv. 50–57)

Into our life

- If you have an experience in which doing God's work has made you feel more inclined to accomplish your own goals, let's share it.
- Which tree do I want to resemble in the tree parable?

Memory Verse | Judges 9:15

And the bramble said to the trees, "If in good faith you are anointing me king over you, then come and take refuge in my shade, but if not, let fire come out of the bramble and devour the cedars of Lebanon."

Sharing with your children

If there's a star or leader that kids want to look like, ask them to share who it is and why.

Reaffirm Your Call



We Are Bound for Canaan Land
Thou, My Everlasting Portion
In All Circumstances

Opening Discussion

What do you consider most when you buy a house or a piece of land?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is is the time Israel didn't yet have kings. The Israelites have been uncertain about their future. Today's scripture shows the tribe of Dan was looking for a place to settle. Verse 1 says,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And in those days the tribe of the Danites was seeking a place of their own where they might settle." During that era, moving or finding the right property wasn't easy. Finding or following the call became more difficult for this generation.

Verse 10 says, "When you get there, you will find an unsuspecting people and a spacious land that God has put into your hands, a land that lacks nothing whatever."

With their own eyes, they saw the spacious land. However, they missed seeing what God had promised. They failed to claim the promise God was going to give them.

That's the reason I chose the title of today's devotion as "Re-evaluate your calling" instead of "Re-evaluate the land." We have to decide what we are going to choose. The hope in the world? Or the hope in God's kingdom?

I urge all of us not to pursue glamor or riches of the world because that will cost us losing the most valuable and beautiful things. The priest in this story was the false priest that only set his eyes on money and security. Regretfully, it seems pastors in our times are following the same suit. Let us reflect on the calling that God gave us. May you be

sustained with God's faithfulness to keep God's church and inheritance each and every day.

Into the Word

- What threat was made to Micah that made him retreat? (v. 26)

Into our life

- What call did God give to you to fulfill in the places of work, your home and church?

Memory Verse | Judges 18:1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And in those days the tribe of the people of Dan was seeking for itself an inheritance to dwell in, for until then no inheritance among the tribes of Israel had fallen to them.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are the things our eyes can see and cannot see?

The Lives of Immigrants



Lately the Life of Christ Burst Out Alive in Me!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The Way Of Life, Lord Showed Us



Opening Discussion

America is called the land of immigrants. Tell us about your life as an immigrant. Have you wanted to return to your home country?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Elimelech and his family moved to Moab. Elimelech died. His wife Naomi also lost her two sons. The story of Ruth emerges as the bright light in the dark and brings hope. Ruth 4:17 is the first place in the Bible where the name of David is mentioned. When Naomi left her home country, regardless of their motives, they probably had great expectations and hope.

There was a great famine in Bethlehem. Suffering doesn't discriminate. Everyone experiences it. However, the attitude towards suffering is different for each person.

The migration journey of Naomi and Ruth was a journey that showed how God was with them during their despair and hardship, and how God filled their lives abundantly.

Naomi and her husband left home and moved to Moab to escape from the famine. Naomi's first son married a Moabite woman. Elimelech's family may have planned to stay for a few seasons, but they ended up staying longer and their sons married Moabite women. When Ruth moved to Bethlehem with her mother-in-law Naomi, she was a widow and a gentile. Her story is similar to us immigrants. Some of you did not attend church in Korea but when you came to America, you started to come to church and met Christ who changed your life.

In this country of immigrants, whether you came to the U.S. 40 years ago or yesterday, we should be the people who are fully experiencing love in our churches. Those who know the deep love of Christ can also love others. The longer we live in this country, the kinder we should become to treat and care for other immigrants so that they may also live in comfort and security.

Into the Word

- Why did Elimelech and Naomi leave their home country and go to Moab?

Into our life

- What are the dilemmas or difficulties when you socialize with people of different ethnicity or culture? What is the benefit or what makes you feel good when you are able to get along with other ethnicities or cultures?

Memory Verse | Ruth 4:17

And the women of the neighborhood gave him a name, saying, "A son has been born to Naomi." They named him Obed. He was the father of Jesse, the father of David.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discrimination did you experience at school because of your skin color or how your look?